

# 미륵사지 보물 품은 국립익산박물관 문 열었다

### 왕궁리 유적·쌍릉 등지 출토 유물 3만여점 보관·전시 3월 29일까지 '사리장엄, 탑 속 또 하나의 세계' 특별전

삼국시대 최대 불교사원 터인 익산 미륵사지 출토 유물 2만3000여점을 포함해 전북 서북부 문화재를 보관·전시할 국립익산박물관이 지난 10일 개관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전라북도가 세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2015년 국립으로 전환하며 만들어졌다.

앞서 2009년 미륵사지 석탑에서 석화 '서동요' 주인공 선화공주가 아닌 사백적덕의 딸이 절을 창건했다는 사리불영기와 화려한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 사리를 봉안하는 일체의 장치)가 나오면서 미륵사와 익산을 향한 관심이 커진 것도 국립익산박물관 설립 계기가 됐다.

익산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13번째 지방 박물관이다. 백제 문화에 집중한 국립박물관은 국립공주박물관과 국립부여박물관을 포함해 3개로 늘었다.

사적 제150호 미륵사지 남서쪽에 있는

'유적 밀착형 박물관'으로,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땅을 파서 지하 2층·지상 1층으로 건립했다. 연면적 7500㎡, 전시실 면적 2100㎡이다.

미륵사지뿐 아니라 익산 왕궁리 유적, 쌍릉 등지에서 나온 유물 약 3만 점을 소장하고, 상설전시실에서는 국보와 보물 3건 11점을 비롯해 3000여 점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국립전주박물관이 그동안 보관한 국보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와 익산 입점된 고분군 금동관도, 익산 원수리 출토 순금제 불상이 고향 익산으로 돌아와 관람객과 만났다.

상설전은 3개 공간으로 나뉜다. 1실 주제는 익산 백제로, 백제 마지막 왕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 무왕과 비 무덤으로 추정되는 쌍릉 출토 자료로 꾸몄다.

2실은 전시 핵심이라고 할 만한 미륵사



지난 10일 개관한 국립익산박물관은 오는 3월29일까지 개관 기념 특별전으로 '사리장엄, 탑 속 또 하나의 세계'를 연다. 사적 제150호 미륵사지 남서쪽에 자리잡은 박물관 전경. <익산시 제공>

지를 토목과 건축, 생산과 경제, 예술과 강경(講經)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했다. 두께가 종이만큼 얇은 유리제 사리병 일부는 최초로 전시에 나왔다.

3실은 익산문화권을 전반적으로 다뤘다. 토기, 도자기, 금동관, 금동신발, 청동기 등 다양한 유물을 통해 익산에 뿌리내

린 고조선과 마한 세력을 소개했다.

익산박물관은 3월 29일까지 개관 기념 특별전 '사리장엄, 탑 속 또 하나의 세계'를 연다. 국보로 지정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보물 제1925호 이성계 사리장엄구 일괄 등 사리장엄 15구 등을 전시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광양 백운산 고로쇠 채취 모습.

##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 본격 출하

### 예년보다 5일 앞당겨...무기질·게르마늄 성분 다량 함유

광양시가 20일부터 3월20일까지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을 채취·판매한다. 지난해보다 5일 빠르게 채취 및 판매가 시작되며 작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시판된다.

첫물이 나오는 20일에는 광양시청 현관과 포스코광양제철소 복지센터에서 홍보·판촉을 위한 고로쇠 수액 시음행사가 열린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 완료했다. 백운산 고로쇠는 인체에 유익한 무기질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고 게르마늄 성분이 타지에 비해 월등해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이맘때 시작해 고로쇠 효능이 탁월한 경칩전까지 백운산 고로쇠를 맛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광양을 찾고 있다.

광양시는 전국 제1의 고로쇠 수액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제과정을 거친 수액만을 시중에 유통할 수 있도록 판매에 심

혈을 기울이고 있다.

수년 전부터 소비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규격의 소포장용기를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도 했다.

광양 고로쇠는 지난해 360여농가가 97만 l의 고로쇠를 채취해 33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광양 고로쇠 농가들은 농가별 채취량에 맞춰 용기를 공급하고 수액용기에 정체일자 표기, 지리적표시 이력이 포함된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소비자 안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태욱 광양시 산림과장은 "친환경적으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기 때문에 수질이 매우 우수해 소비자의 선호가 높고 있다"며 "산림의 건강을 지키면서 농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위생적인 채취는 물론 산림생태환경 보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정읍시, 사람 중심 녹색환경 도시 조성 주력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등

정읍시가 사람 중심의 건강한 녹색 환경 도시 조성에 주력한다.

정읍시는 시민 모두가 쉽게 누릴 수 있는 녹색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생태계 기능 증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색 환경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17억70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6억1000만원을 투입한다. 5등급 경유 차량과 도로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전기 자동차를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자연 친화적 하천을 정비하고 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과 상수도 노후관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녹물과 냄새 발생 등으로 인한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해 맑고 깨끗한 '물'의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도심 순환형 돌레길과 정읍천 꽃길, 생활권 도시 숲을 조성해 행복이 자라나는 풍성한 숲의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생활권 도시 숲 조성을 위해 9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로수 정비와 명상숲 조성 등 사업이 집중 추진 될 전망이다.

획이다.

또 시는 자연 친화적 하천을 정비하고 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과 상수도 노후관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녹물과 냄새 발생 등으로 인한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해 맑고 깨끗한 '물'의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도심 순환형 돌레길과 정읍천 꽃길, 생활권 도시 숲을 조성해 행복이 자라나는 풍성한 숲의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생활권 도시 숲 조성을 위해 9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로수 정비와 명상숲 조성 등 사업이 집중 추진 될 전망이다.



생활권 도시 숲으로 조성된 정읍천 가로수길.

시는 정읍천 꽃길 조성 사업에는 다년 생 야생화(꽃향유, 황금달맞이꽃) 식재와 관리비로 2억 원을 투입해 가로 경관 개선

과 녹지공간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군, 양파·마늘 농가 의무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독려

고창군이 양파와 마늘 생산자 중심의 수급 조절을 위해 의무자조금단체 회원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고창군에 따르면 양파와 마늘 경작자를 대상으로 2월말까지 의무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회원 가입 신청 자격은 1000㎡ 이상 양파, 마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나 전년 도 양파, 마늘 생산액 1억원 이상인 생산

자단체다.

신청을 바라는 경작자는 주산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무자조금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한 설명회는 오는 20일 대산면과 흥덕면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남원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남원시는 2020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12일까지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거공간(주택구입, 신축) 마련을 용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

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올해는 750가구 11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남원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 안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세얼굴

### “화합·배려...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 최오남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글로벌 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단장으로 취임한 최오남(56)단장은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한, 농어촌에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으로 힘찬 도약을 하는데 적극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단장은 이어 “조직 구성원과의 신뢰 구축, 화합과 배려, 신뢰와 협업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찾아가는 고객 서비스, 안전·품질·공정관리에 만전,

영산강 3·4지구 대단위농업 종합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 출신인 최 단장은 1989년에 입사해 전남지역본부 해남·안도지사장, 무안·신안지사장, 본사 수자원기획처장, 전남지역본부 영암지사장 등을 역임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